

# 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교사신뢰, 공감적 이해수준 및 아동의 학습동기와의 관계 :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Relationship among Teacher'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Trust and Empathic Understanding and Children's Learning Motivation

조한숙(Han Suk Cho)<sup>1)</sup>

문혁준(Hyuk Jun Moon)<sup>2)</sup>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influences of teacher'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their trust and empathic understanding on children's learning motivation. Participants were 513 5<sup>th</sup> and 6<sup>th</sup> graders from Seoul, Buchon and Incheon. Data were collected via questionnaires and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1) Teacher'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trust and empathic understanding were positively related to children's learning motivation. (2) Teacher'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was the strongest predictor for children's learning motivation. (3) Teacher'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had a direct influence on children's learning motivation empathic understanding mediated between teacher'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children's learning motivation.

**Key Words** : 교사의 변혁적 리더십(teacher'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신뢰(trust), 공감적 이해(empathic understanding), 학습동기(learning motivation).

## I. 서 론

21세기는 지식의 전달이라는 전통적인 교사의 역할보다는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고취시켜

학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지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게 하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모든 행동의 근원은 동기이므로 학습활동의

<sup>1)</sup> 가톨릭대학교 아동가족학 전공 박사과정

<sup>2)</sup> 가톨릭대학교 아동학 전공 부교수

**Corresponding Author** : Hyuk Jun Moon, College of Human Ec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43-1 Yeokgok2-dong, Bucheon, Gyeonggi-do 420-743, Korea  
E-mail : mhyukj@unitel.co.kr

근원 역시 학습동기라고 할 수 있다. 동기란 특정 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동원될 수 있는 개인의 제반 특성이 활성화된 상태를 뜻한다. 동기가 높은 학습자들은 학습에 대해 열정적이고 흥미가 높고 관심과 호기심이 크며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고 도전과 방해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또한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고 많이 학습하고 스스로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갖는다. 이와 같이 높은 동기 상태는 개인의 행동을 시작하게 하며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고 행동을 계속 유지하게 한다. 따라서 동기의 여부는 학교학습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조건이 된다(이혜원, 2001).

학습동기는 학생들이 학습에 대해 노력을 기울이는 정도, 학습전략의 활용, 학습에 대한 만족감 등과 같은 학생들 개인의 성취행동에서부터 학업성취수준에 이르기까지 학습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다(이은주, 2000).

이러한 학습동기는 많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즉 계획세우기, 목표에 집중하기, 배우고자 하는 내용과 그것을 어떻게 배우고자 하는지에 대한 상위 인지적 인식, 새로운 정보에 대한 능동적 탐구, 피드백의 명확한 지각, 성취에서 오는 자부심과 만족,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없는 것 등이 포함된다(Johnson & Johnson, 1985). 특히 학습활동에서 지식이나 기능획득은 분명히 중요한 것임에 틀림이 없으나 학습이 자기활동의 과정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먼저 학습자가 학습과제에 흥미를 느끼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하려는 강한 의지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과제에 대한 학습자의 지적 호기심이나 학업에 대한 성취욕 등과 같은 내재동기에 의해 유발된 학습동기는 학습에 있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김현심, 2002). 학습동기는 학습하고자 하는 희망이나 의

도 이상의 것, 즉 학생의 정신적 노력의 질이 포함된다. 이러한 요소들을 살펴보면 학습동기는 학생 스스로가 학습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나 경험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도 있고, 타인에 의해 형성되는 것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습동기에 대한 본 연구는 이동의 중요한 타인인 교사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최근 들어 학습동기에 관한 몇몇 연구들은 학습동기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향이기는 보다는 개인의 발달이나 교육환경에 따라 변화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이은주, 2000). 교사-학생 간 혹은 또래 간의 관계가 학생들의 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Connell과 Wellborn (1991)은 유능감, 자기결정, 유대관계를 인간의 세 가지 기본적인 욕구라고 하며 유대관계는 사회적 맥락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싶고, 가치 있고, 사랑과 존경받는 인간이 되고자 하는 욕구라고 하였다. 또한 McCombs (1994)는 자신의 동기모델의 세 가지 핵심적인 구성요소 중의 하나로 사회적 지원을 포함시킴으로써 교육적 맥락에서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는 인간관계가 학습자의 동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정범모와 이성진(1985)은 수업과정에서 학습자는 교사의 행동을 다양하게 지각하고 반응하면서 자신의 인성, 태도, 가치관, 적용 등에 깊은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고, 조광규(1997)는 학생이 수업시간에 교사행동을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학생들의 학습동기와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김순택(1989)은 학교교육에서 수업시간에 교사의 행동은 학습자의 정의적 특성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였고, 이남범(1998)은 중·고등학교 학습자들의 학습동기와 학교적응 및

학업성적간의 관계연구에서 학습동기와 학교 생활적응은 유의 있는 정적상관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학교교육에서 다양한 학습동기 요소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다루어 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수업이다. 따라서 교사의 수업행동이나 교수활동은 학생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육요소가 된다. 그 이유로 아동은 주어진 교육의 대상이고 학습 환경의 많은 부분은 교사의 활동여하에 따라 학습 효과가 결정되기 때문에 교사의 리더십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하겠다(김신, 1971). 교사는 학급의 모든 활동을 조정할 책임이 있는 리더로서 리더가 어떤 유형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학급의 목적 성취가 좌우되며, 이를 반영하듯 교사의 자질여부에 따른 아동의 학업성취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리더로서의 교사의 자질과 관련된 연구이다(김재호, 2002).

Silberman은 교사들이 어떻게 가르치고 행동하느냐가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봄으로써 수업에 있어서 교육의 내용보다는 오히려 교사의 행동에 더 큰 중요성을 부여하였다(김현심, 2002, 재인용).

급변하는 현대사회와 더불어 리더십의 개념과 내용에 있어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리더십에 관한 개념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조직의 구성원들과 리더 사이의 상호작용(reciprocal action) 혹은 교환 작용(interaction)의 과정으로의 정의가 일반화 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현대적 의미의 리더십이란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협력과 조화의 관계이며 상명하복의 수직적 개념이 아니라 상호작용의 수평적 개념이다(김대규, 2003). 이처럼 사회와 시대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패러다임의 이동은 교육패러다임의 이동을 동반하게 되었다.

교육 리더들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리더십에 대한 새로운 관점도 요구되었다. 즉 그 방법의 일환으로 변혁적 리더십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Leithwood, 1992).

하지만 이렇듯 급변하는 사회 현상 속에서 교육 조직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게 된 변혁적 리더십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교장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현상은 그동안 학교 조직에 있어서 리더는 교장이라는 인식이 만연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행정적·조직적 리더십은 대개 교장이나 부장, 혹은 장학사에게 필수적인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지만 사실상 교사에게도 필수적인 요소이다.

송호순(2002)은 교사의 변혁적 지도성이 높을수록 학생의 학습태도는 높은 정적상관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히며 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은 학습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고, Corno와 Rohrkemper(1985)의 연구에서도 교사가 현실적이면서 다소 도전적인 목표수준을 제시하고, 학생들의 노력을 강조하며, 적절한 수업 지도를 했을 때 학생들은 높은 수준의 학습동기를 나타낸 반면 또래간의 비교와 경쟁을 강조하는 교실구조는 학습동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화(2003)는 교사의 변혁적 지도성과 학습조직 효과성은 높은 정적 상관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박용배(2002) 또한 학생이 지각하는 교사의 변혁적 지도성 정도에 따라 학업성취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더불어 최윤선(2001)은 아동이 지각한 교사의 행동에 따라 학습동기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고, 이경미(2004)는 아동이 지각한 교사의 지도성 유형과 아동의 학습의욕과의 관계에서 아동이 교사의 지도성을 높게 인식할 때 가장 학습의욕이 높게 나타났으며, 박갑순(2001)은 초

등학교 아동이 지각하는 담임교사의 지도성 유형과 조직 효과성간의 관계 연구에서 초등학생이 지각한 담임교사의 지도성은 학급아동의 응집성과 친밀성, 사기, 사회적 자아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 분석을 통하여 아동이 지각하는 교사의 리더십은 어떤 형태로든 아동들의 역할수행이나 학교생활태도에 관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볼 때 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은 학생의 학습동기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교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학생의 학습동기와의 관계를 밝힌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며 또한 변혁적 리더십을 변인으로 매개효과 본 연구 또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학교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구성원들 사이에 상호신뢰, 상호존중, 상호격려, 상호지지의 조화로운 분위기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학습활동은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와 그 속에서 우리나라 오는 학습동기가 있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Furrer & Skinner, 2003).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전반에서 특히, 학교에서의 신뢰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사신뢰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으로 향후 많이 연구되어야 할 분야이다. 설재연(2006)의 연구에서 교사에 대한 신뢰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고, 학년이 낮을수록 성적이 중, 상위 집단일 때 교사신뢰는 높다고 하였으며, 장선자(2004)는 중학생이 대학생보다 교사를 더욱 신뢰하며, 중학생의 성별에 따라 교사신뢰의 차이는 없었으나 대학생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교수를 더 신뢰한다고 하였다. 즉, 교사신뢰는 연령별, 성별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생의 사회경제적인 배경과 교사에 대한 학생의 신뢰는 관계가 없음이 확인되었고, 도덕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학생일수록 교사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유기원, 2001)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사관련변인과 교사신뢰는 최근에 많이 연구되고 있는 주제이다. 이경숙(2007)은 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이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Skinner와 Belmont(1993)는 교사와 아동간의 정서적이고 신뢰로운 관계가 아동의 학습동기나 자아개념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이러한 학습동기나 자아개념들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 Pianta와 Seinberg(1992) 또한 아동의 교사신뢰 정도가 학업성취와 학교생활적응을 예측하는데 유의미한 변인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일반조직에서의 인간관계와 달리 학교에서 수행해야 하는 교사의 역할은 다면적이다. 교사는 때로는 부모의 역할을 때로는 전문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인간관계 변인을 반영한 교사의 효율적인 공감적 이해는 아동의 긍정적인 인성의 변화를 촉진하고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인성의 긍정적 변화와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주는 촉진적인 인간관계 변인 중에서 공감적 이해는 가장 기초적이고 본질적인 의사소통능력이라 할 수 있다(이기복, 2000).

윤표중(1993)은 담임교사의 공감적 이해수준이 촉진적일수록 바람직한 학업과 학생의 교사에 대한 태도형성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으며, 조재환(1998)은 학생이 지각하는 담임교사의 공감적 이해가 체계적이고 상황에 알맞은 적절한 어휘를 통한 공감적 의사소통으로 이루어 질 때 학생들의 자아개념 형성에 더 효과적임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실제로 최근 연구들(Furrer & Skinner, 2003)은 이러한 학생과 교사간의 관계 맺음이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발달, 학습동기 및 학업성

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한명의 교사가 지도해야 하는 초등학교의 상황에서 교사가 전달하려는 내용과 학생이 지각한 내용과는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김병성(1988)은 교사가 전달하려고 했던 내용과 학생이 실제로 받아들인 내용과는 크게 다를 수 있으며 전달하려고 했던 내용이 아무리 잘 의도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실제의 효과는 학생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 들이느냐에 달려있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학생이 교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지각할 수 있는 정도를 고려하여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초등학교 5, 6학년은 연령이 11세-13세에 해당하며, 연령으로는 아동기에 포함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초기 청소년기에 포함될 수 있다. 특히 초기 청소년기인 초등학교 고학년 시점부터 그 후 중학교에 입학하여 본격적으로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학습동기의 여부가 청소년기 이후의 학습성취 및 학교적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학생과 교사의 인간관계는 발달적 변화의 관계이다. 즉 학생의 학년 발달에 따라 교사와의 관계도 변화하여 간다(최경석, 2002). 산업사회의 물질문명의 발달로 인해 아동의 신체 성숙이 빨라지는 것을 감안할 때 5, 6학년은 같은 고학년이지만 학생과 교사의 인간관계는 다른 종류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학교교육의 교육목적은 크게 보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인격을 형성한다는 교육목적과 지식을 전수받기 위한 준비의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학교교육은 인격형성이나 개인의 잠재적인 능력 보다는 대학입학 준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지식 위주의 편중된 학교교육으로 인해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해당되는 초기 청소년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사회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성이나 태도를 형성하고 확립하지 못하고 미래 사회에 나아가 타인들과의 관계 형성을 위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이러한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교와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시 위주 교육으로 결핍되었던 인성교육과 사고력, 창의력 교육에 충실하여 지식사회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를 위해 변화하는 미래 사회를 창조적으로 이끌어갈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 리더들의 변화와 신뢰가 더욱 요구되어 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교사는 직접적으로 교육의 질과 성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주체이므로 아무리 식견이 탁월하고 학습시키는 방법이 탁월하다 하더라도 아동과의 인격적인 신뢰감이 없이는 피상적인 지식의 전수에 그칠 뿐 진정한 의미의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하는 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교사신뢰와 공감적 이해수준 및 학습동기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알아봄으로써, 아동의 바람직한 학습동기에 관련이 있는 요인을 규명하여 학교가 올바른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교사신뢰 및 공감적 이해수준이 성별과 학년에 따라 아동의 학습동기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교사신뢰, 공감적 이해수준 및 아동의 학습동기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교사신뢰와 공감적 이해수준이 성별과 학년에 따라 아동의 학습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4> 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은 교사신뢰를 매개로 아동의 학습동기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5> 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은 공감적 이해수준을 매개로 아동의 학습동기에 영향을 미치는가?

였으며 총 25문항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리커트 척도이며, 각 요인의 총점이 높을수록 학생이 학습동기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문항의 예를 들어보면, ‘나는 친구들과보다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려고 한다.’, ‘나는 수업내용을 완전히 이해하면 마음이 즐겁고 더욱 공부하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 등이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아동기 후기로 자기보고가 가능한 초등학교 5, 6학년을 선정하였다. 이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부천시, 인천시의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동 각 200명씩 600명이다. 설문지를 작성한 초등학교생 중 문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부실 기재한 경우를 제외하고 총 513명이 최종분석 대상이 되었다. 연구에 포함된 아동의 남아가 243명(47.4%), 여아가 270명(52.6%)으로 나타났으며, 5학년이 295명(57.5%)이며 6학년이 218명(42.5%)으로 나타났다.

###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아동이 지각한 자신의 학습동기, 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교사신뢰, 교사의 공감적 이해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로 구성하였다.

#### 1) 학습동기

학습동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김용래(2000)가 개발한 학교학습 동기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학교학습 동기를 기본질동기, 계속동기, 본질동기, 수업동기의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분하

#### 2) 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을 측정하기 위하여 Bass와 Avolio(1990), 권인택(1994), 노종희(1996)의 연구를 바탕으로 이경희(2006)가 초등학교생에게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32개 문항으로 카리스마, 지적자극, 개인적 배려, 결속촉진 등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 선생님은 우리를 반하게 하는 재주가 있으시다.’, ‘우리 선생님의 반이 되어 공부하는 것이 자랑스럽다.’ 등이다.

#### 3) 교사신뢰

교사신뢰를 측정하기 위해 이숙정(2005)이 만든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개방성, 능력, 성실성, 돌봄, 믿음, 친밀감의 6개 하위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5문항으로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리커트 척도이며, 각 요인의 총점이 높을수록 교사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문항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 선생님은 말과 행동이 본받을 만하다.’, ‘우리 선생님은 나를 인정하고 격려해 준다.’ 등이다.

#### 4) 교사의 공감적 이해수준

교사의 공감척도는 Davis(1980)가 제작한 검사를 박성희(1996)가 번안한 것으로 이기복(2000)이 아동의 수준에 맞게 수정한 공감능력 검사지를 활용하였다. 공감의 인지적 요인으로 관점 취하기와 정서적 요인으로 공감적 관심척도, 공감적 각성으로 하위 척도별 문항 수는 5개씩 총 15 문항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의 공감적 이해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 선생님은 감정이 풍부하다.’, ‘우리 선생님은 우리가 웃으면 따라서 잘 웃는다.’ 등이다.

<표 1>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들의 신뢰도 (N=513)

척도	문항수	신뢰도
<b>학습동기</b>	<b>25</b>	<b>.94</b>
비본질동기	8	.84
계속동기	6	.76
본질동기	7	.85
수업동기	4	.73
<b>교사의 변혁적 리더십</b>	<b>32</b>	<b>.96</b>
카리스마	10	.93
지적자극	7	.84
개인적 배려	5	.74
결속촉진	10	.92
<b>교사신뢰</b>	<b>30</b>	<b>.94</b>
능력	5	.83
개방성	5	.78
믿음	5	.72
친밀감	5	.86
돌봄	5	.84
성실성	5	.76
<b>교사의 공감적 이해수준</b>	<b>15</b>	<b>.89</b>
관점취하기	5	.80
공감적 관심	5	.74
공감적 각성	5	.67

### 3.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 1) 연구절차

설문지의 난이도 및 이해도를 검토하기 위해 부천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조사는 서울시, 부천시, 인천시 초등학교 3곳으로부터 사전에 자료조사 협조를 요청하여 도움을 받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연구목적에 충분히 이해한 후 학교 담임교사의 도움을 받아 아동에게 배부되었으며 배부된 설문지는 현장에서 응답하도록 한 후 회수되었고 연구자가 수합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600부 중 부실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513부의 설문지가 분석에 최종 사용되었다.

#### 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교사신뢰, 공감적 이해수준 및 아동의 학습동기의 전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였으며, 성별과 학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교사신뢰, 공감적 이해수준 및 아동의 학습동기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단순상관관계를 실시하였으며, 아동의 학습동기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사신뢰와 공감적 이해수준은 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을 매개로 학습동기에 영향을 미치는가는 회귀분석을 이용한 매개 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 III 결과분석

연구문제별 분석에 앞서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해보았다. 아동이 지각한 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교사신뢰, 공감적 이해수준 및 학습동기는 대체로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연구문제 별 자료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성별과 학년에 따른 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교사신뢰, 공감적 이해수준 및 이동의 학습동기와의 차이

아동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교사신뢰, 공감적 이해수준 및 학습동기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성별에 따라 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은 남아 집단( $M=2.70, SD=.63$ )과 여아집단( $M=2.73, SD=.64$ ), 교사신뢰는 남아 집단( $M=2.84, SD=.57$ )과 여아집단( $M=2.91, SD=.60$ ), 공감적 이해수준은 남아 집단( $M=2.73, SD=.58$ )과 여아집단( $M=2.77, SD=.61$ ), 학습동기는 남아 집단( $M=2.76, SD=.57$ )과 여아집단( $M=2.74, SD=.50$ )에서 통계적으로 모두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학년에 따라 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t=2.91, p<.01$ ). 즉 5학년( $M=2.79, SD=.62$ )이 6학년( $M=2.62, SD=.64$ )보다 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을 높게 지각하고 있으며, 교사신뢰( $t=2.23, p<.05$ ), 공감적 이해수준( $t=3.10, p<.01$ ), 학습동기( $t=2.19, p<.05$ )에서도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5학년이 6학년 보다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 2. 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교사신뢰, 공감적 이해수준 및 이동의 학습동기와의 상관관계

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교사신뢰, 공감적 이해수준 및 학습동기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3>과 같다.

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은 교사신뢰와 공감적 이해수준에 의미 있는 정적 상관( $r=.86, p<.01$ )을 보였으며, 학습동기간에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정적 상관( $r=.40, p<.01$ )을 보였다. 교사신뢰와 공감적 이해수준( $r=.87, p<.01$ ), 학습동기( $r=.34, p<.01$ ), 공감적 이해수준과 학습동기( $r=.29, p<.01$ )와도

<표 2> 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교사신뢰, 공감적 이해수준 및 학습동기의 집단별 평균과 표준편차와 독립표본 *t* 검증 결과 (N=513)

변인	연구집단			평균(표준편차)			
	전체 (N=513)	남아 (N=243)	여아 (N=270)	<i>t</i>	5학년 (N=295)	6학년 (N=218)	<i>t</i>
변혁적 리더십	2.72(.64)	2.70(.63)	2.73(.64)	-.56	2.79(.62)	2.62(.64)	2.91**
교사신뢰	2.88(.59)	2.84(.57)	2.91(.60)	-1.22	2.93(.61)	2.81(.56)	2.23*
공감적 이해수준	2.75(.60)	2.73(.58)	2.77(.61)	-.74	2.82(.61)	2.66(.55)	3.10**
학습동기	2.75(.54)	2.76(.57)	2.74(.50)	.41	2.79(.55)	2.69(.51)	2.19*

\* $p<.05$  \*\* $p<.01$



<표 3> 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교사신뢰, 공감적 이해수준 및 학습동기와의 상관 관계 (N=513)

	1	2	3	4
1. 변혁적 리더십	1			
2. 교사신뢰	.86**	1		
3. 공감적 이해수준	.86**	.87**	1	
4. 학습동기	.40**	.34**	.29**	1

\*\*p<.01

모두 정적 상관을 보였다.

### 3. 성별과 학년에 따라 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교사신뢰와 공감적 이해수준이 아동의 학습동기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성별과 학년에 따라 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교사신뢰와 공감적 이해수준이 학습동기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

을 실시하기에 앞서 회귀분석에 투입된 독립변수들의 VIF값을 살펴본 결과 5이하(4.1-4.9)와 Durbin-Watson(DW)계수도 1.81로 잔차간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회귀분석을 위한 기본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되었다. 그 결과는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다.

먼저 성별에 대해 살펴보면, 남아의 경우 변혁적 리더십( $\beta=.39, p<.001$ )이 아동의 학습동기에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설명력은 15%이었고 여아의 경우도 변혁적 리더십( $\beta=.61, p<.001$ )이 아동의 학습동기에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설명력은 20%이었다.

다음으로 학년에 결과를 살펴보면, 5학년의 경우 변혁적 리더십( $\beta=.33, p<.05$ )이 아동의 학습동기에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설명력은 14%이었고 6학년의 경우 변혁적 리더십( $\beta=.78,$

<표 4> 성별과 학년에 따른 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교사신뢰와 공감적 이해수준 이 학습동기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N=513)

종속변수	구분	독립변수	$\beta$	R <sup>2</sup>	F
학습동기	남아 (243)	변혁적 리더십	.39***	.15	13.67***
		교사신뢰	.22		
		공감적 이해수준	-.25		
	여아 (270)	변혁적 리더십	.61***	.20	21.98***
		교사신뢰	.02		
		공감적 이해수준	-.23		
학습동기	5학년 (295)	변혁적 리더십	.33*	.14	16.24***
		교사신뢰	.17		
		공감적 이해수준	-.13		
	6학년 (218)	변혁적 리더십	.78***	.22	20.44***
		교사신뢰	.01		
		공감적 이해수준	-.43**		

\*p<.05 \*\*p<.01 \*\*\*p<.001

<표 5> 교사신뢰에 대한 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의 회귀분석

단계	종속 변인	독립 변인	R	R <sup>2</sup>	β	F	t	p
1	교사 신뢰	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86	.73	.86	1388.9	37.26	.000

\*\*\* $p < .001$

$p < .001$ )과 공감적 이해수준( $\beta = .43, p < .01$ )이 아동의 학습동기에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설명력은 22%이었다.

전체적으로 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이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교사가 리더십을 발휘할 때 학습동기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 4. 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은 교사신뢰를 매개로 학습동기에 영향을 미치는가?

교사신뢰가 교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학습동기 간에 매개변수로 작용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매개효과란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통하여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방법이다. 매개변인 효과는 Baron과 Kenny(1986)의 방법에 따라 회귀분석으로 검증하였는데, 1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한 다음,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동시에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한다. 이 때 매개 효과가 있다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1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한 효과를 미쳐야 하고,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이는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2단계에서 보다는 3단계에서의 회귀식에서 더 적게 나타나야 한다. 또한 매개 효과는 완전 매개와 불완전 매개로 구분되는데, 완전 매개는 3단계에서 종속변인에 대한 매개변인의 영향력이 유의하면서 독립변인의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은 경우이며, 불완전 매개는 3단계에서 종속변인에 대한 매개변인의 영향력도 유의하고 독립변인의 영향력도 모두 유의한 경우를 의미한다(유지선, 2004).

본 연구문제에서는 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을 독립변인, 교사신뢰를 매개변인, 학습동기를 종속변인으로 보고 교사신뢰가 교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학습동기를 매개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표 5, 6, 7>에 제시하였다.

1단계로 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은 교사신뢰에 대해 73%의 설명력을 가지며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

<표 6> 학습동기에 대한 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의 회귀분석

단계	종속 변인	독립 변인	R	R <sup>2</sup>	β	F	t	p
2	학습 동기	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40	.16	.40	95.07	9.75	.000

\*\*\* $p < .001$

<표 7> 학습동기에 대한 교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교사신뢰의 회귀분석

단계	종속 변인	독립 변인	R	R <sup>2</sup>	β	F	t	p
3	학습 동기	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교사 신뢰	.40	.16	.40	47.45	9.75	.000 .972

\*\*\* $p < .001$

로 독립변인에 매개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1단계의 조건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2단계로 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이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력은 16%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2단계의 조건을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단계로 교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교사신뢰가 동시에 학습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는데 교사신뢰가 유의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 5. 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은 공감적 이해수준을 매개로 학습동기에 영향을 미치는가?

공감적 이해수준이 교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학습동기 간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독립변인인 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은 공감적 이해수준을 유의하게 예언하였고( $\beta = .86, p < .001$ ), 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은 학습동기를 유의하게 예언하였다( $\beta = .40, p < .001$ ). 이를 통해 매개 효과 검증의 1, 2단계를 만족한다는 것을 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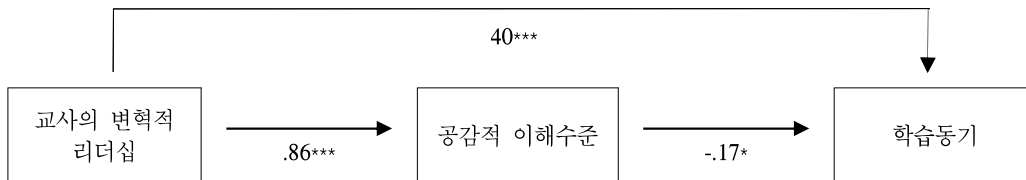
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공감적 이해수준이 동시에 학습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는데 학습동기에 대한 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의 예언력은  $\beta = .54$ 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학습동기에 대한 공감적 이해수준의 예언력도  $\beta = .17$ 로  $p < .05$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3단계의 조건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3단계에서의 학습동기에 대한 교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공감적 이해수준이 모두 유의하므로 공감적 이해수준은 불안전 매개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감적 이해수준이 교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학습동기를 불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이 학습동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공감적 이해수준을 매개로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교사의 변혁적

<표 8> 교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학습동기 간의 공감적 이해수준의 매개효과



리더십, 교사신뢰, 공감적 이해수준 이 학습동기와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연구문제 별로 얻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논의 및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라 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교사신뢰와 공감적 이해수준 및 학습동기를 다르게 지각하는지를 알아본 결과 유의한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초등학생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을 높게 지각하는 이경희(2006)의 연구와는 다소 다른 점이 있으나 아동의 교사에 대한 지각에 있어서 성차를 발견하지 못한 이선영(1993)의 연구와는 일치하고 있다.

교사신뢰에 있어서도 남녀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교사신뢰에 차이가 없다는 장선자(2004)의 연구와 일치하였고, 공감에 있어서 여타 요인은 차이가 없다는 홍화진(1987)의 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학습동기에 대한 차이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임영숙(2008)의 연구와는 일치하고 있지만, 청소년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Eccles과 그의 동료들(1993)의 연구에서 학습동기에 유의미한 성차가 있음을 보고한 결과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남학생은 수학이나 운동에서 높은 학습동기를 나타내는 반면, 여학생은 영어, 악기, 사회과 등에서 높은 학습동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학년에 따라 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교사신뢰, 공감적 이해수준 및 학습동기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5학년이 6학년 보다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년이 낮을수록 교사신뢰가 높다는 설재연(2006)의 연구와 일치하며 같은 고학년이지만 6학년 아동보다는 5학년이 아직 교사의 능력과 믿음을 더 신뢰하고 있는 것

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교육의 구체적인 맥락에서 교사와 학생의 신뢰관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학년이 높을수록 교사신뢰는 감소될 것이라고 한 연구와는 일치하지만 반대로 학년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교사신뢰수준이 높아졌다는 이숙정(2005)의 연구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학습동기의 학년별 차이를 분석한 이은주(2000)의 연구에서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동기는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는 많은 선행연구들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Marsh(1989)는 초등학교 동안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동기가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Harter(1981)도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내재적 동기가 계속 하락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Stipek과 Mac Iver(1989)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성취기대가 너무 낙관적이며, 때로는 자신의 실력보다 터무니없이 높지만, 학년이 올라가면서 점차 현실적으로 바뀌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실제로 초등학교 저학년은 실패를 경험한 후에도 여전히 높은 학습동기를 나타냈지만, 초등학교 4, 5학년정도 부터는 반복적으로 실패를 경험한 학생들에게서 학습된 무기력감(learned helplessness)이 나타나며, 학교에 대한 부정적 태도, 학교성적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였다(Blumenfeld & Pintrich, 1982).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형식적인 관계를 벗어나 함께 생활하고 학습하며 학생들은 교사가 학급의 지도자임을 인정함으로써 호의적이고 사려 깊은 안내를 기대하고 이러한 현상이 특히 초등학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교사의 행위, 언어, 어투, 상황 등은 학생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이병진, 1992)는 사실을 고려할 때, 학생과 함께 활동하는 교사의 역할과 자질은 학생의 바람직한 성장의 중요한 변수임을 알고 교사의 신뢰를 높이고 나아가 학생의 학습동기를 높일

수 있는 교사의 모습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동기가 하락한다는 본 연구의 결론은 교사나, 교육자, 학부모에게 결코 반가운 일일수 없다. 그러나 학습동기가 학습전반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학습동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어떠한 패턴으로 하락하는지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동기의 하락을 회피할 수 없는 현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적절한 교육적 지도방안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동기를 증진시키려는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교사신뢰와 공감적 이해수준 및 학습동기와의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교사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학습동기와 학교생활 적응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김신숙(199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고, 공감능력이 높은 교사일수록 학생의 교사신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Clark(1980), Eisenberg와 Strayer(1987), Redmond(1989) 등의 대인관계 연구에서 공감이 서로 간에 보다 친밀한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데 촉진 작용을 한다는 결과와 박성희(1993)의 공감은 서로간의 관계를 진전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교사의 공감능력이 학생들과의 신뢰로운 관계를 구축하고 발전시켜 나가며 학생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특히 학생의 교사에 대한 신뢰 중 친밀감이 높을수록 학생의 학습동기가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학생이 교사에 대하여 친밀하게 느낄 때 학생은 학습의욕을 높이고 학습에 대한 성취가 높아지고 계속 공부하고자 하는 동기가 높아짐을 입증해 준 결과로 의미가 있다. 따라서 학생을 수용하고 학생들이 친밀감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는 교사의 자세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는 성찰의 계기

가 끊임없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셋째, 성별에 따라 학습동기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남아, 여아 모두 교사의 변혁적 리더십만이 학습동기에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많은 선행 연구들이 학습동기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교실환경 변인으로 학생들의 자율성, 비교와 경쟁, 교사의 칭찬과 격려, 학생들의 학습참여도 등을 들고 있는(Epstein, 1988; Marshall & Weinstein, 1986; Meece, 1991) 맥락에서 이해되어 질 수 있다.

즉 학생들 스스로 과제를 선택하도록 하거나 교사의 통제를 최소화한 경우 학생들은 자의에 의해 학습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지각하게 되므로 학습동기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며, 실제로 교사의 자율성 허용정도가 증가한 경우 내재적 동기가 증가하였다. 자신의 교실환경에 대해 학생들의 자율성 및 교사의 칭찬과 격려가 많으며, 학생간 경쟁과 비교가 적다고 지각할수록 학생들의 학습동기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특성들은 다른 변인들보다 교사의 변혁적 리더십만이 설명할 수 있는 변인이라 생각되며 아동의 학습동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동이 지각한 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리더십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학년에 따라 학습동기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5학년의 경우는 변혁적 리더십만이 유의한 변인이며, 6학년의 경우는 변혁적 리더십과 공감적 이해수준이 학습동기에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Eisenberg와 Mussen(1978)의 연구에서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통해 공감을 측정하고 동기와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남아에게서는 유의한 상관을 발견했지만 여아에게서는 아무런 상관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연구와 맥을 같이하며 본 연구

대상의 학년에 따른 성별 숫자의 차이가 이러한 결과의 원인을 제공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원인 규명을 위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넷째, 공감적 이해수준이 교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학습동기를 매개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은 학습동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공감적 이해수준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학습동기를 촉발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이 높아야 하지만 동시에 높은 변혁적 리더십의 지각 정도는 아동의 공감적 이해수준 형성에 영향을 주어 간접적으로 학습동기가 일어나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동기가 교사신뢰와 학교생활적응을 매개한다는 연구(설재연, 2006)와 맥락을 같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교사신뢰와 학습동기는 학교생활적응 변량을 59%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김정화 · 김언주, 2006) 연구결과들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들은 학교생활적응과 관련하여 인지적, 행동적 측면을 다루는 연구들은 많았으나 학교생활에서의 정의적 측면 특히 교사와 아동과의 관계에서의 신뢰, 믿음을 다루는 연구들은 많지 않았다. 학교는 지적인 교육과 관련되는 표면적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학교에서의 생활전체를 학습으로 보는 잠재적 교육과정도 함께 이루어지는 교육 현장으로 아동의 바람직한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교사와 아동간의 신뢰와 믿음을 기반으로 아동이 건강하게 학교생활에 적응하며 학습동기를 갖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학습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연구에 한걸음 더 나아가 공감적 이해수준이 교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학습동기를 매개하는지를 확인한 결과 공감적 이해

수준은 불완전 매개로 작용하여 학습동기에 직, 간접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이를 보완하기 위한 추후 연구를 위해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5, 6학년 아동의 학습동기를 질문지를 통해 알아보았으나,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장기간에 걸친 종단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학습동기 변화의 패턴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동기변화가 어떠한 패턴으로 일어나는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동기변화의 원인을 밝히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므로 후속 연구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연구 과제라고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학습동기를 설명하는 변인으로 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교사신뢰 및 공감적 이해수준으로 상정하고 공감적 이해수준이 교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학습동기를 매개하는지를 매개 효과로 확인하였으나 변인 간 불완전 매개 효과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다루어 지지 않은 학습동기를 완전 매개하는 변인을 선택하여 학습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아동기 후기인 5, 6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며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아동전체의 일반적인 경향으로 해석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학습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었으며, 교사의 역할과 자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초등학교에 있어 교사는 제 2의 부모이며 동일시의 대상이다. 학생들은 교사와의 관계를 통해 학습

동기를 높여 자신의 바람직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때 교육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올바른 교육환경을 제공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교육현장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 참 고 문 헌

- 김대규(2003). 변화에 시대에 요구되는 리더십 연구. 창의력개발연구, 6, 91-111.
- 김미화(2003). 교사의 변혁적 지도성과 학급조직 효과성과의 관계.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병성(1988). 교육사회학. 서울 : 양서원.
- 김순택(1989). 현대수업원론. 서울 : 교육과학사.
- 김신(1971). 교사의 지도성. 서울여자대학교 논문집, 1, 107-118.
- 김신숙(1998). 학습동기와 자아개념이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용래(2000). 학교학습동기척도와 학교적응척도의 타당화 및 두 척도 변인간의 관계분석. 교육연구논총, 17, 3-37.
- 김정화·김언주(2006). 아동이 지각한 교사신뢰 및 학습동기와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 아동교육, 15(2), 117-129.
- 김재호(2002). 상호평가를 통한 교사의 리더십에 대한 인식과 기대수준.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현심(2002). 자아개념, 부모의 성취압력, 교사행동과 학습동기의 관계연구. 교육연구, 14(1), 175-193.
- 권인탁(1994). 학교조직에서 변화 지향적 지도성 측정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노종희(1996). 학교 행정가의 변혁 지향적 리더십의 진단 및 육성방안 연구. 교육행정학 연구, 14(3), 265-283.
- 박갑순(2001). 초등학교 아동이 지각한 담임교사의 지도성 유형과 조직 효과성과의 관계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박성희(1993). 공감의 특성과 이타행동.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박성희(1996). 공감, 공감적 이해. 서울 : 원미사.
- 박용배(2002). 학생이 지각하는 교사의 변혁지향적 지도성 정도에 따른 학업 성취도의 차이.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설재연(2006). 학생의 교사신뢰, 학습동기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송호순(2002). 교사의 변혁적 지도성과 학생의 학습태도와의 관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유기원(2001).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가치관이 교사에 대한 신뢰와 학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유지선(2004). 여대생의 진로 미결정과 애착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윤표중(1993). 학생이 지각한 담임교사의 공감적 이해수준과 학생의 학교학습태도와의 관계.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경미(2004). 아동이 지각한 교사의 지도성 유형과 아동의 학습의욕과의 관계.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경숙(2007). 교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학생의 창의성의 관계에서 신뢰의 매개역할.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경희(2006).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학습동기와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기복(2000). 아동이 지각한 담임교사의 공감적 이해수준과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남범(1998). 학습동기와 학교적응 및 학교성적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병진(1992). 초등교육원리. 서울 : 문음사.
- 이선영(1993). 아동의 교사에 대한 지각이 학교생활적

- 응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숙정(2005). 교사신뢰척도 개발 및 교사신뢰와 학교 효과 변인의 관계모형 검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이은주(2000). 초등학생들의 학습동기의 변화. *초등교육연구*, 14(1), 47-66.
- 이혜원(2001). 자아개념, 학교태도, 교사기대지각이 학교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임영숙(2008).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유형, 교사신뢰, 학습동기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장선자(2004). 중학생과 대학생의 교사에 대한 신뢰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정범모 · 이성진(1985). *학업성취의 요인*. 서울 : 교육출판사.
- 조광규(1997). 교사행동에 대한 학생의 지각이 학습동기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조재환(1998). 학생이 지각한 담임교사의 공감적 이해 수준과 자아개념 및 학습태도와의 관계.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최경석(2002).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와의 인간관계 실태.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최윤선(2001). 아동이 지각한 교사행동과 자아존중감 및 학습동기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홍화진(1987). 아동의 공감발달과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Bass, B. M., & Avolio, B. J. (1990). Developing transformational leadership : 1992 and beyond. *Journal of European Industrial Training*, 14, 21-27.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di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lumenfeld, P., & Pintrich, P. (1982). Children's perceptions of school and schoolwork : Age, sex, social class, individual and classroom difference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New York : NY.
- Clark, K. B. (1980). Empathy : A neglected topic in psychological research. *American Psychologist*, 35, 187-190.
- Connell, J., & Wellborn, J. (1991). Competence, autonomy, and relatedness : A motivational analysis of self-system processes. In M. Gunnar & L. Sroufe (Eds.), *Self processes in development : Minnesota Symposium on Child Psychology*(pp.43-77). Hillsdale,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Como, L., & Rohrkemper, M. (1985). The intrinsic motivation to learn in classrooms. In R. Ames & C. Ames(Eds.), *Research on Motivation in Education : The Classroom Milieu*(pp.53-90). Orlando, FL : Academic Press.
- Davis, M. H. (1980).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 in empathy. *J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 in Psychology*, 10, 85.
- Eccles, J., Wigfield, A., Harold, R., & Blumenfeld, P. (1993). Age and gender differences in children's achievement self-perceptions during the elementary school years. *Child Development*, 64, 830-847.
- Eisenberg, N., & Mussen, P. H. (1978). Empathy and moral development in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14, 185-186.
- Eisenberg, N., & Strayer, J. (1987). *Empathy and its Development*(pp.146-162). New York : Cambridge Press.
- Epstein, J. L. (1988). Effective schools or effective students : Dealing with diversity. In R. Haskins & D. McRae(Eds.), *Policies for America's Public School : Teacher Equity Indicators*(pp.89-126). Norwood, N J : Ablex.
- Furrer, C., & Skinner, E. (2003). Sense of relatedness



- as a factor in children's academic engagement and performa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5(1), 148-162.
- Harter, S. (1981). A new self-report scale of intrinsic versus extrinsic orientation in the classroom : Motivational and informational compon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17, 300-312.
- Hill, J., & Lynch, M. (1983). The intensification of gender-related role expectations during early adolescence. In J. Brooks-gunn & A. Petersen (Eds.), *Girls at Puberty*(pp.201-228). New York : Plenum Press.
- Johnson, D., & Johnson, R. (1985). Motivational processes incooperative, competitive, and individualistic learning situations. In C. Ames & R. Ames (Eds.), *Research on motivation in education. Vol.2 : The classroom milieu*(pp.249-286). New York : Academic Press.
- Leithwood, K. A. (1992). The move toward transformational leadership. *Education Leadership*, 49(5), 8-12.
- Marsh, H. (1989). Age and sex effects in multiple dimensions of self-concept : Preadolescence to early adulthood.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1, 417-430.
- Marshall, H., & Weinstein, R. (1986). Classroom context of student-perceived differential teacher treat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8, 441-453.
- McCombs, B. (1994). Strategies for assessing and enhancing motivation : Keys to promoting self-regulated learning and performance. In H. O'Neil & Drillings(Eds.), *Motivation : Theory and Research*(pp.49-69). Hillsdale,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Meece, J. L. (1991). The classroom context of student's motivational goals. In M. Maehr & P. Pintrich (Eds.), *Advances in Motivation and Achievement* (pp.261-285). Greenwich, CT : JAI Press.
- Pianta, R. C., & Seinberg, M. (1992). Teacher-child relationships and the process of adjustment to school.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57, 61-80.
- Redmond, M. V. (1989). The function of empathy in human relation. *Human Relations*, 42, 593-605.
- Skinner, E. A., & Belmont, M. J. (1993). Motivation in the classroom : reciprocal effects of teacher behavior and student engagement across the school year.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5(4), 571-581.
- Stipek, D., & Mac Iver, D. (1989). Developmental change in children's assessment of intellectual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60, 521-538.

2009년 4월 24일 투고, 2009년 8월 17일 수정  
2009년 9월 11일 채택